2022-2학기 글쓰기(공학인증)(12분반)
기말 대체 과제: 문헌연구보고서

외로이 죽어가는 청년들, '청년 고독사'

- 청년 고독사의 현황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

건설시스템공학부 남승원

목 차

Ⅰ. 서론
Ⅱ. 청년 고독사의 실태
1. 청년 고독사의 현황
2. 청년 고독사가 급증하게 된 배경
Ⅲ. 청년고독사에 대한 대응 및 해결방안
1. 청년 고독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2. 청년 고독사에 대한 일본의 대응
3. 청년 고독사의 해결방안
Ⅳ. 결론

Ⅰ. 서론

우리는 살면서 고독사라는 단어를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고독사는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 나 홀로 죽음이 급증하면서 생긴 신조어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무연고 사망도 통상적으로 고독사에 포함이 되는데, 해를 갈수록 점점 늘어나는 고독사로 인해 현재 고독사는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였다. 보통 고독사를 생각하면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주변의 교류 없이 쓸쓸히 돌아가시는 것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의 고독사 중 약 43%가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보고되었다.[1] 이에 따라 현재 시행되는 고독사의 정책은 고령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예산도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고독사는 더 이상 노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 2030 청년층의 고독사 문제는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년'과 '고독사'라는 두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

1) 문병주(2020.10.01.), 「고독사 3년 간 40% 급증…65세 이상이 43%」,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84694#home(2020.12.04.).

이지만, 지금도 어디에선가 청년은 외로이 죽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독사에 관한 대처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2020년 3월 제정되어 고독사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 등을 의무화한 일명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역시 노년층과 중장년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청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집계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2] 따라서 청년 고독사를 이해하기 위해 청년 고독사의 현황과 급증하게 된 배경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와 이웃 나라 일본의 대응을 통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청년 고독사의 실태

1. 청년 고독사의 현황

2019년, 2020년 발생한 전국 변사사건의 경찰 기록에 따르면, '부패, 악취, 구더기'처럼 고독사가 확실시되는 현장이 2019년에 3,704건, 2020년에 4,19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이는 적어도 하루에 평균 11명의 고독사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별로는 2020년 서울시에서 발생한 고독사 790건 중 30대 이하가 73건으로 30대 이하의 청년 고독사가 약 10%에 육박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40세 미만 무연고 사망은 2017년 63건, 2018년 76건, 2019년 81건, 2020년 100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3][4] 이로 미루어 보아 점점 늘어나는 고독사와 함께 청년 고독사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독사 중 청년의 비율이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독사의 원인을 조사하면 질병으로 인한 비율이 가장 높지만, 청년층으로 대상을 좁히면 자살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전체 사망원인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대와 30대의 사망 원인 1위는 각각 56.8%, 40.6%로 극단 선택이 압도적이었으며, 서울시 연령대별 고독사 중 자살률은 2020년에 30대가 41.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20대가 40.9%로 그 뒤를 이었다.[5] 이는 외로움 속에 자신이 처한 현실을 비관해 끝내 자살이라는 선택을 한 청년이 다수 존재하며, 현대 사회의 암세포처럼 자리 잡은 심각한 현 실태를 보여준다.

2. 청년 고독사가 급증하게 된 배경

그렇다면 청년 고독사는 왜 급증했을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첫 번째로는 '1인

---

2) 이성우(2022.02.14.), 「실태조사·통계조차 없어… '고독사예방법'은 독거노인에 한정」, 《복지타임즈》, http://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255(2022.12.04.).
3) 성진규(2021.12.08.), 「"아프니까 청춘…외로운 것도 청춘 때문인가요?" 2030 고독사 점점 늘어나」, 《하이닥》, https://www.hidoc.co.kr/healthstory/news/C0000636256(2022.12.04.).
4) 서은수,이상미(2021.04.11.), 「아무도 몰랐던 죽음 청년 고독사」, 《YTN》, https://www.ytn.co.kr/_ln/0103_202104110642272934(2022.12.04.).
5) 성진규(2021.12.08.), 앞의 기사.

가구의 증가'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가치관의 확산으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지역 유대감은 매우 옅어진 상태이다. 행정안전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 수는 약 937만으로 전체 가구 중 40%가 1인 가구이며, 2030세대의 1인 가구가 전체의 32.2%로 나타났다.[6] 선진국의 경우, 1인 가구가 상당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우리나라는 과속 수준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불과 20년 만에 약 3배가 증가하는 빠른 속도의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7] 이러한 청년들의 높은 1인 가구 비중은 청년들이 외로움, 우울증, 무기력감에 취약한 환경에 처했다는 것을 암시하며, 기댈 곳 없는 청년들이 사회적·심리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나타낸다.

두 번째로는 '높은 청년 실업률'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인해 청년실업이 심각해진 상태에서, 설상가상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한정된 일자리를 차지하려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대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해 도태된 청년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5세에서 39세 가운데 취업해 본 적이 없는 청년들의 수가 2019년은 23만 1천 명, 2020년에는 28만 7천 명 그리고 2021년에는 32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8] 이렇게 높은 청년 실업률은 경제적 빈곤과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안 좋은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청년 고독사 현장의 유품들을 보면 취업 준비 서적, 인스턴트식품, 편의점 도시락 등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는 '부족한 청년 복지 시스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주로 사회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청년층은 자연스럽게 복지에서 소외되고 있다. 당연하게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고독사 관련 정책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한 점들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Ⅲ. 청년 고독사에 대한 대응 및 해결방안

1. 청년 고독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정부는 2007년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시작으로 법 제도적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왔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홀몸노인돌봄사업', '독거노인공동생활제' 등 현재까지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였지만 이들의 수혜 대상은 모두 독거노인이었다.[9] 2020년 4월에는 무연고 사망과 고독사를 관리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법'을 시행하였지만, 앞서 기술했다시피 청년 고독사 사망자의 추이 통계가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 점 등의 한계가 명확하였다.

---

6) 홍혜림(2021.11.03.), 「1인 가구 대세시대…청년들의 삶은요?」, 《KBS NEW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5731(2022.12.04.).
7) 신현주(2018), 「한국사회의 변화하는 고독사 현상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14-2, 한국범죄심리학회, 11쪽.
8) 성진규(2021.12.08.), 앞의 기사.
9) 최지연(2018), 「고독사 예방 정책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5쪽.

현재 정부는 점차 증가하는 청년 고독사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올해 8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노인 중심에서 청년, 중장년 1인 가구로 사업 대상자를 확대하였음에 의의가 있다. 또한 그간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절적으로 추진되어왔으나,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한다.[10] 하지만 일정 시간 동안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위험신호를 전달하는 '스마트 플러그' 설치 및 대면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안부확인 프로그램 등의 기존의 시스템을 계속 유지한다는 점에서 매년 급증하는 청년 고독사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2. 청년 고독사에 대한 일본의 대응

가장 먼저 고독사 문제가 대두된 일본은 여러 실패를 거쳐, 현재 일본의 고독사 문제는 서서히 해결되고 있는 상태이다. 일본도 초기에는 고령층에 초점을 두어, 문제를 사회적 고립과 돌봄을 받지 못한 상태로 파악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2007년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한 해 동안 무려 3만 5천 명의 고독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어 정책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다.[11] 즉, 사람과의 관계가 희박해지며 생긴 새로운 사회 문제와 급증하는 젊은 층의 고독사 문제를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주민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선택적 지원책을 강구하였으며, 일본의 심각한 문제인 일명 '히키코모리'들이 자주 들리는 편의점 직원을 통해 그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등의 밀착형 지원책을 실시하였다.[12] 또한 정부가 나서 '고독'이라는 개인의 감정적 표현 대신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상황을 나타내는 '고립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다.[13]

3. 청년 고독사의 해결 방안

청년 고독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첫 번째는 '정책 대상을 구체화한 맞춤형 지원'이다. 청년들의 대부분은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같이 매일 방문하는 접근 방법을 청년에게 사용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전 연령에 획일화된 대응이 아닌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지금까지는 대체로 청년을 동일 집단으로 설정한 정책을 펼쳤다면, 정책의 대상인 청년을 더욱 구체화하여 대상자에게 꼭 맞는 개별적 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청년 고독 문제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다수를 상대로 일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1 대 1로 밀착하여 맞춤형 지원을 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김진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어떤 청년인지에 대한

10) 황인구(2022.08.01.),「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8월부터 첫걸음」,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0&CONT_SEQ=372433(2022.12.12.).
11) 신현주(2018), 앞의 논문, 9쪽.
12) 위와 같음.
13) 윤석만(2022.10.18.),「20대 사망원인 57%는 극단선택, 고독사는 9년새 3.4배 늘어」,《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9937#home(2022.11.20.).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1인 가구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14)]

두 번째 해결 방안은 본질적인 해법으로 '사회의 변화'이다. 우선, 고독사를 고령층의 전유물로만 여기는 인식에서 벗어나 그 대상이 청년층까지 확대되었다는 사회의 인식이 필수적이다. 또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붕괴된 현재의 지역사회가 아닌, 지역사회의 긴밀한 연대와 유대를 통해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사회적 가족을 만드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더불어 사회안전망을 확보해 청년들의 고립과 단절을 막을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하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사회 도처에 널려 있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Ⅳ. 결론

지금까지 청년 고독사의 현황과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본고에서 제시한 해결 방안 역시 보완할 점이 있다. 우선 첫 번째 해결 방안의 경우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있다. 개별적 서비스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지켜지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이전의 정책에 비해 비용이 많이 소모될 것이다. 두 번째 해결 방안의 경우 사회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해결 방안으로, 막연할 수 있으며 매우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앞서 청년 고독사의 주된 원인은 자살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20년 한국의 자살예방 예산은 417억 원으로, 일본의 2017년 자살예방 예산 6조 7033억 원에 비해 160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15)] 청년 고독사는 나날이 증가하여 현재 사회의 문제가 되었지만, 사회는 여전히 청년들의 고독과 정신건강에는 무관심하며, 청년층은 복지는 물론 고독사 앞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회는 청년들을 '청춘, 꿈, 열정, 미래' 등의 희망찬 단어로 포장하며 청년들의 아픔을 단지 지나갈 성장통이라고 여기지만, 그 결과 청년들은 사회와 고립되어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청년 고독과 청년 고독사에 더욱 경각심을 갖고 주변을 관심 있게 둘러보는 것이 청년 고독사를 예방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

14) 홍혜림(2021.11.03.), 앞의 기사.
15) 차창희(2021.07.06.),「일본 자살 예방 예산 한국의 160배…"매년 3배씩 증액해야"」,《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9940696(2022.12.12.).

[참고 문헌]

신현주(2018), 「한국사회의 변화하는 고독사 현상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4-2, 한국범죄심리학회.
최지연(2018), 「고독사 예방 정책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병주(2020.10.01.), 「고독사 3년 간 40% 급증…65세 이상이 43%」,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84694#home(2020.12.04.).
서은수,이상미(2021.04.11.), 「아무도 몰랐던 죽음 청년 고독사」, 《YTN》, https://www.ytn.co.kr/_ln/0103_202104110642272934(2022.12.04.).
성진규(2021.12.08.), 「"아프니까 청춘...외로운 것도 청춘 때문인가요?" 2030 고독사 점점 늘어나」, 《하이닥》, https://www.hidoc.co.kr/healthstory/news/C0000636256(2022.12.04.).
윤석만(2022.10.18.), 「20대 사망원인 57%는 극단선택, 고독사는 9년새 3.4배 늘어」,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9937#home(2022.11.20.).
이성우(2022.02.14.), 「실태조사·통계조차 없어… '고독사예방법'은 독거노인에 한정」, 《복지타임즈》, http://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255(2022.12.04.).
차창희(2021.07.06.), 「일본 자살 예방 예산 한국의 160배…"매년 3배씩 증액해야"」,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9940696(2022.12.12.).
홍혜림(2021.11.03.), 「1인 가구 대세시대…청년들의 삶은요?」, 《KBS NEW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5731(2022.12.04.).
황인구(2022.08.01.),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8월부터 첫걸음」,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0&CONT_SEQ=372433(2022.12.12.).